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Analysis of Buddhistic Scriptures in the Early Thirteenth Century

金 聖 洙(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백련사 및 천태종 관련 불전의 분석 |
| 2. 13세기 前期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 | 6. 고려재조대장경 雕造의 의미 |
| 3. 13세기 전기 불서간행의 현황 | 7. 結 論 |
| 4. 수선사 및 조계종 관련 불전의 분석 | <參考文獻> |

< 초 목 >

이 논문은 한국의 역사 중 가장 격동의 시기였던 13세기 전기(前期)에 간행된 불서들에 대하여 서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3세기 전기의 시대상황과 불서의 간행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또한 이들 간행불서가 그 시대 불교계와 민중들에게 각각 어떠한 정신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들 개개불서 간행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추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1) 13세기 전기 조계종(曹溪宗) 및 수선사(修禪社)에서 간행된 12종의 불서에 대한 결산(決算)이라 할 수 있는 「남명송증도가(南明頌證道歌)」는 1239년에 최이(崔怡)의 발원에 의하여, 수선사와 무신정권과의 더욱 원활한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鑄字版을 목판으로 거듭 새겨(重彫)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13세기 전기에 천태종 및 백련사에서 간행된 3종의 불서에 대한 종결이면서 백련결사의 이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 계환해」 또한 1240년에 최이의 발원에 의하여, 백련사와 무신정권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간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1251년에 완성된 고려재조대장경 또한 최씨 무신정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완료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서들의 간행 및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는, 오로지 불법을 신봉하는 맑고 바른 마음에서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반백성들의 민족적 동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론, 즉 대몽항쟁을 위한 민족적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어: 불서(佛書), 「남명송증도가(南明頌證道歌)」, 「법화경(法華經)」, 고려재조대장경(高麗再彫大藏經).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4년 5월 31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ibliographically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he early thirteenth century, one of the most turbulent times in Korean history. An attempt is made to examine what kind of relationship was there between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whether these scriptures had any spiritual influences on the Buddhism and the public, and what was the implication of publishing individual Buddhist scriptur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Nammyongsongjungdo-ga(南明頌證道歌)」 considered to complete twelv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the Chogye Buddhist Order and Susonsa, was published in 1239 by the offerings of Choi Yi who wanted to improve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usonsa and the military regime.

2) 「Bophwagyong Kyehwanhae(法華經 戒環解)」, the theoretical basis of Baengnyon Kyolsa as well as the completion of thre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the Chontae Buddhist Order and Baengnyonsa, was also published in 1240 by the offerings of Choi Yi for the same purpose of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Baengnyonsa.

3) 「Koryo Chaejo Taejanggyong(高麗再雕大藏經)」, published in 1251, was also completed by the financial support from Choi's military regime.

In conclusion,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and the carving of <Koryo Chaejo Taejanggyong> can be considered to play a role as a centripetal force which promoted the public who wanted to defend the country by relying on Buddhism.

Keywords: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Nammyongsongjungdo-ga(南明頌證道歌)
Bophwagyong(法華經)
Koryo Chaejo Taejanggyong(高麗再雕大藏經)

1. 서론

13세기 前期는 한국역사에 있어서 민족최대의 위기와 고난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231년(高宗 18) 8월에 살리타이(撒禮塔)가 이끄는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하여 1255년까지 무려 7차례나 대규모로 침공하였으며, 이에 고려는 이 침략에 맞서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무려 40년 이상 몽고에 극렬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國運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고려가 이룩한 文化的業績 또한 世界文化史에 길이 남을 만큼 至大하다. 즉, 崔怡가 이끄는 武臣政權은 江華島로 도읍을 遷都하여 몽고에 저항하면서도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도서인 「백운초록직지」(1377)¹⁾보다 무려 138년이나 이른 시기인 1239년(己亥; 高宗 26)에, 천도(1232) 이전에 이미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던 「南明泉和尚頌證道歌; 이하 「남명송증도가」로 약칭함) 鑄字本을 翻刻(重彫)하여 木板印刷本으로 간행하였고, 또한 천도 이전에 개경에서 간행하였던 「古今詳定禮文(詳定古今禮文; 이하 「상정예문」이라 약칭함)을 1234년부터 1241년 사이에 강화에서 金屬活字로 刊行한 쇄거를 관련기록²⁾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몽고를 물리치기 위한 大願力을 세운 결과 「高麗再雕大藏經」(1326-1251)을 雕造함으로써 세계문화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1)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2) 李奎報(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 후집 권11에 의하면, 이규보가 晉陽公 崔怡(?-1249)를 대신하여 지은 <新序詳定禮文跋尾>(「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1, 第7張. 위 跋尾의 제목 아래에 ‘代晉陽公行’이라 기록하여, 최이가 晉陽侯에 책봉된 이후에 이 문장이 작성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에서 ‘仁宗 때 崔允儀 등이 50권으로 편찬한 「상정예문」을 遷都 후 鑄字를 사용하여 28本(部)을 새로 印成하여 여러 관아(諸司)에 갈무리(藏)하게 하다’는 기록이 있다. 즉, 「상정예문」은 국가의 典禮를 다룬 것으로서 仁宗(1127-1140)때 최윤의 등 17명이 王命으로 엮은 것을 최이의 선친인 崔忠獻이 補綴케 하여, 2부를 작성한 다음, 禮官과 자기 집에 1부씩 간직해 두었는데, 천도할 때 예관의 것은 황금한 나머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그 책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는데, 자기 집의 것(家藏本)만이 남게 되었다. 그 不失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를 마침내 鑄字를 사용하여 28本을 새로 인쇄하여 여러 관아에 나누어 보관(分藏)케 하였다는 것이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이 「상정예문」은 현재 그 底本이나 그 어떤 번각본도 후세의 우리에게 전하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려시대 13세기 전기의 금속활자 인쇄의 사정에 관하여 고증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鑄字版 重彫本인 「남명송증도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에 고려불교의 조계종과 천태종에서는 각각 修禪社와 白蓮社라는 結社運動을 전개함으로써 고려불교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동시에 이 양종의 교단에서는 20여종의 佛書를 간행하여 그들의 결사운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게다가 13세기 전기의 후반에는 최이의 무신정권이 이들 양대 결사운동의 이론적 기반 불서에 대한 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양대 결사운동을 對蒙抗爭의 정신적 기틀로 삼고자 切齒腐心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의 역사 중 가장 격동의 시기였던 13세기 전기에 간행된 불서들에 대하여 서지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대상황과 불서의 간행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또한 이들 간행불서가 그 시대 불교계와 민중들에게 각각 어떠한 정신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개개불서 간행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2. 13세기 前期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

본 장에서는 13세기 전기에 간행된 불서의 간행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3세기 前期의 정치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대상황 및 이 당시 불교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1 13세기 전반의 시대상황

본 절에서는 13세기 전기 고려조의 정치상황을 비롯한 시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등에서 그 주요상황의 기록들을 추출·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12세기말·13세기초의 시대상황을 논급하기 위해서는 崔忠獻의 武臣政權의 등장부터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최충헌은 1196년 4월에, 1183년 7월에 실권을

장악하였던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1206년에 최충헌은 晉康候가 되어 ‘興寧府’를 개설하면서 정권을 완전하게 장악한다.³⁾ 1216년(高宗 3) 8월에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하였다. 1218년에는 고려에 침입한 거란군을 몽고와 함께 격퇴한다. 이것이 이른바 ‘江東城戰鬪’이다. 1219년 9월에 최충헌이 죽고, 그의 아들인 崔瑀(?-1249); 뒤에 怡로 改名함; 이하 崔怡로 통일하여 표기함)가 집권하게 된다.⁴⁾ 1231년 8월에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해 왔다. 그리하여 몽고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려는 1232년 6월에 江華(강화도)로 遷都할 것을 결정한다.⁵⁾ 그리하여 1234년에 최이는 천도의 공로로 ‘晉陽侯’에 봉하여졌다.⁶⁾ 그후 몽고와의 전쟁은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1232년 12월에 김윤후가 處仁城에서 살리타이를 사살하자, 몽고의 제2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 침략으로 인하여 초조대장경이 불타게 된다. 그리고 1235년 윤7월에 탕구(唐古)가 이끄는 몽고군이 제3차 침입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3차에 걸친 몽고의 계속적인 침입은 드디어 高麗 再雕大藏經의 板刻을 촉발시켜, 1236년 10월에 강화에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재조대장경의 雕造가 시작된다.⁷⁾

한편 1249년에 최이가 죽고, 그 아들인 崔沆이 집권하였다. 그리고 1257년에 최향이 죽고, 崔誼가 집권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258년 3월에 최의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최씨 정권이 끝나고 고려는 王政으로 복귀하게 된다. 최씨 무신정권의 기간

- 3) 최충헌이 집권할 동안에 ‘만적의 난’을 비롯한 많은 반란과 농민봉기가 있었으나, 그는 이를 적절히 토벌하거나 회유하여 강력한 권력을 수립하였다.
- 4) 최이는 집권하자 그 초기에는 민심을 얻는데 힘썼다. 1225년에 최이는 ‘政房’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행정도 장악한다. 그리고 최이는 1227년에는 자신의 집에 ‘書房’을 두고 名儒를 소속시킨다. 그는 文士와 儒生들을 잘 포섭하여 治道에 이용하였다.
- 5) 최이의 강화천도는 자못 자신에 넘친 몽고의 방어책이었던 것이며, 그 결과 對蒙仇戰에 있어 결정적인 모멘트를 준 것이니, 고려의 강화천도로 말미암아 몽고는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침하였으나, 江都는 단 一步도 들여놓지 못하였던 것이다(김상기, 『新編 高麗時代史』(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387.)
- 6) 이와 더불어 최이 지금의 진주지방을 식읍으로 받았다. 진주의 古地名이 바로 晉陽이다.
- 7) 이 직후인 1238년에 육지의 내륙에서는 蒙古軍에 의하여 경주 黃龍寺의 거대한 목조9층탑이 불타고, 또한 황룡사의 장육상도 燒失된다. 이후 1247년에 아무간이 지휘하는 몽고군이 제4차로 침입하였고, 1253년의 제5차 침입, 1254년에 제6차 침입, 1255년에 지랄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의 제7차 침입이 계속되었다.

동안 대몽항쟁은 지속되었다.⁸⁾ 그리하여 고려의 일반백성들은 13세기 후반기인 1270년대까지 對蒙抗爭을 끊이지 않고 지속하였던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 13세기 前期의 불교계 동향

본 절에서는 고려 13세기 전기의 불교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로 12세기말·13세기초의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불교계의 두드러진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당시 불교계의 여러 종파를 논술하고, 마지막으로 최이를 비롯한 무신정권과 당시 불교계와의 관계를 차례로 논술하고자 한다.

2.2.1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특징

12세기말·13세기초에 있었던 무신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당시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이 당시 '사상적으로 불교는 유학·도교 등 다른 사상과의 관계가 좀 더 밀착되고 혼합되는 경향이 두드러짐'⁹⁾이라는 첫 번째의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⁰⁾ 특히 몽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강화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개경에 기반을 둔 관리 중 강화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하한 儒生들 중에서 입

8) 1270년 6월에 조정에서 首都를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결정하자, 裴仲孫은 三別抄를 이끌고 대몽항쟁을 다시 시작하며, 그 해 8월에 삼별초군은 진도 섬으로 그 사령부를 옮긴다. 몽고군에 대한 항복을 원치 않았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삼별초에 가담하여 대몽항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삼별초의 항쟁'은 1273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중 1271년 1월에 경상도 밀양과 청도의 농민들이 진도의 삼별초의 군대에 호응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켰고, 개경의 관노들이 다루가지와 고려의 관리들을 죽이고 삼별초와 합류하려고 진도로 가려다가 발각되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사건 등도 있었다.

9) 許興植, "13세기 高麗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高麗中·後期佛敎史論』(서울: 民族社, 1986), p. 83.

10) 무신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문벌세력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세속을 등지고 입산하여 승려가 됨으로써 목숨을 유지한 문벌의 자제들이 많았다. 이들은 승려로 생애를 마친 자도 많았지만, 明宗(1170-1197) 이후 科擧를 통하여 관인으로 진출하려고 환속하는 자도 많았다. 이인로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당시 유학의 수준은 佛僧들에 의하여 명맥이 유지되는 형편이었고, 이 때문에 유학은 불교에 예속된 성격이 강하였다(허흥식, 상계논문, 同面).

산하던 자가 늘어났다. 이들은 國子監試 또는 禮部試에 급제할 정도로 유학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들이다. 眞覺國師 慧謙(1178-1274),¹¹⁾ 圓鑑國師 冲止(1226-1292),¹²⁾ 眞靜國師 天頤(1206-?)¹³⁾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었다.

최씨 무신정부의 집권과 몽고의 침입은, 당시 사회적으로 불교계의 구심점이 개경에서 지방으로 옮겨진 점이 두드러진다.¹⁴⁾ 이것이 바로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⁵⁾ 게다가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자 중부이북의 사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의 사찰들이 당시 불교계의 중심도량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즉, ‘조계산 修禪社’의 結社 및 ‘萬德山 白蓮社’의 결사가 바로 그것이다.¹⁶⁾ 이는, 고려정부가 몽고와의 항쟁기간 동안에 전국의 불교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지방 불교계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었다¹⁷⁾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징은 어디에서 基因하는가?

강화천도 이후 오로지 강화도라는 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무신정권은 몽고와의 항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육지 중에서 특히 몽고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한반도 남부지방의 백련사나 수선사로부터의 정신적·물질적인 지원 및 대장경의 조조를 위한 노동력의 투입 등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무신정권은 바로 이들 불교계를 기반으로 하여 몽고와의 항쟁을 위하여

-
- 11) 진각혜심 : 호는 無衣子, 자는 永乙, 속성은 崔씨, 이름은 寔이다. 眞覺국사는 그의 諡號. 그는 和順 출신으로, 24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太學에 들어갔다. 그의 모친 사망 후 보조·지눌을 찾아가 출가하였다. 지눌의 입적 후 조계산 修禪社의 제2世 社主를 맡아 玄風을 크게 떨친 인물이다.
- 12) 밀암충지 : 속명은 魏元凱, 초휘는 法桓. 正安 출신. 諡號는 圓鑑국사. 19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翰林이 되고,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天英의 가르침을 받고, 천영 입적 후 조계산의 제6대 宗主가 됨. 원나라에 가서는 世祖에게 賓主의 예로 존경을 받고 돌아옴.
- 13) 진정천책 : 자는 蒙且, 호는 內願堂, 속성은 申씨, 귀족의 자제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만덕산 원묘요세에게 출가하여 普賢道場에 들어간 뒤, 후에 백련사의 제4대 祖師가 됨.
- 14) 허홍식, “13세기 高麗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p.85.
- 15) 특히 고려 정부가 강화로 천도한 이후, 당시 불교계의 고승들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그 활동 기반을 굳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16) 그 상세한 사항들은 다음目中에서 논술될 것이다.
- 17) 허홍식, “13세기 高麗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p.86.

일반백성들의 민심수습과 그들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 즉, 무신정권은 대몽항쟁의 지속을 위한 이념적 기반구축을 당시 불교계를 통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들과 13세기 전기에 최이가 발원한 불서들의 간행은 서로 깊은 상관성이 있으리라는 心證을 지니고 있다.¹⁸⁾

위와 같은 지방 불교계의 활동으로 인하여 13세기 당시 고려불교계는 귀족중심적인 경향에서 민중중심적인 경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이것이 바로 13세기 고려불교계의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세기 전반기에는 문벌귀족 출신의 教宗 승려들이 왕사나 국사를 독점하였으나 12세기 후반에는 禪宗 출신의 왕사·국사가 책봉되었다. 그러나 13세기에는 戶長層 및 향리의 자제 가운데서 왕사·국사가 책봉된 예도 찾아진다.²⁰⁾

2.2.2 13세기 고려불교계의 宗派

무엇보다 고려 12세기말·13세기초 불교계의 가장 큰 특징은, 1190년에 결성된 ‘수선사의 결사’와 1216년에 결성된 ‘백련사의 결사’를 들 수 있다. 이들 결사는 13세기 불교계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32년경에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몽고의 격퇴를 위한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 사업이 1236년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다.

우선 12세기 후기 이후 무신정권의 등장은 당시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최씨 무신집권에 의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문벌화된 개경의 문신귀족이었고, 이들의 가문과 결탁되었던 승려들은 주로 ‘교종 계통의 사원’²¹⁾에 소속된

18) 이 부분에 대한 논술은 다음章에서 상술될 것이다.

19) 허홍식, “13세기 高麗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p.86.

20) 허홍식, 상계논문, 同面.

즉, 원감국사 혜심의 아버지는 鄉貢進士였고, 원묘국사 了世의 아버지 또한 호장이었던 예가 바로 그것이다.

21) 이 가운데 중요한 사원은 重光寺·弘護寺·歸法寺·弘化寺·興王寺·弘圓寺·王輪寺 등이다.

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²⁾ 『僊鳳寺 大覺國師 碑文』에 의하면,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종파로서 曹溪宗²³⁾ · 華嚴宗²⁴⁾ · 瑜伽宗²⁵⁾을 들고 있다.²⁶⁾ 이 세 종파는 이른바 ‘三大業’이라 불렸고, 국사·왕사의 배출도 이 세 종파를 벗어나서 책봉된 예가 없었다. 이러한 삼대종파에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창립한 天台宗이 가세되면서, 13세기 이후의 불교는 이른바 사대업 즉 고려불교의 四大宗派 시대를 맞았던 것이다.²⁷⁾

이제, 위와 같은 4대종파 중에서, 13세기 고려 불교계를 주도하는 화엄종 · 천태종 · 조계종의 종파별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2.2.1 華嚴宗

불교의 교종과 선종 중에서, 교종에 속하였던 화엄종은 광종(949-975) 임금 이후에 교종의 핵심종파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유가종은 문종(1046-1083) 임금 이후 통불교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여 선종의 위치를 대신하면서 화엄종과 함께 고려 중기 불교의 二大敎宗으로 자리잡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1196년 이후 최씨 무신집권기로 들어서면서, 바로 이 양대 교종의 승려들과 사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²⁸⁾ 그리하여 최씨집권시대에서 개경의 문벌세력과 결탁되었던 교종

이러한 사원들은 무신집권기에 무신에 항거한 승려들의 세력기반이 된 곳들이다.

- 22) 許興植, “13세기 高麗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p.81.
 23) 慧能의 南宗禪을 이어온 조계종을 의미함.
 24) 여기서는 신라의 義湘대사를 계승한 화엄종을 의미함. 화엄종은 대각국사 의천이 入寂(1101)할 때까지 왕권의 강화하려는 왕실 및 일반관료들과 지속적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었다.
 25) 신라 元曉의 학풍을 바탕으로 하면서, 眞表율사의 修讖을 중요시한 수행생활을 접합시킨 유가종을 의미함. ‘유가종은 주로 왕실의 외척과 연결된 귀족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p.166)’는 경향을 보인다.
 26) 黃壽永 編著, “高麗僊鳳寺大覺國師碑陰記”, 『第五版 韓國金石遺文』 (서울: 一志社, 1994), p.476.
 27) 의천이 천태종을 開倉하는 데에는, 당시 고려불교계에 있어 교종과 선종의 대립 경향으로 인하여, 敎觀雙修의 교리를 지닌 천태종을 내세워 종파불교를 극복하려는 의천의 보편주의와 국제주의의 사상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28) 『고려사』 열전 42에 의하면, 무신집권 이후 무신들은 문신귀족 세력을 도태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종의 승도들과 무신정권과의 격돌을 들 수 있다. 즉 1217년(高宗 4)에 문신귀족과 연결되어 있었던 홍왕사 · 홍원사 등 교종 사찰의 승도

세력 즉 화엄종과 유가종은 그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1세기초 거란(契丹)의 침입으로 고려는 일대 국란에 직면하자, 이 국란의 타개를 발원하여 1011년(顯宗 2)부터 대장경의 조조에 들어가 1087(선종 4)년에 드디어 그 조판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 초조대장경은 당시 현화사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²⁹⁾ 이 현화사는 고려초에 확립된 3대종과 가운데 교종에 속한 유가종의 사원으로서, 왕실의 후원을 받는 眞殿寺院이었다. 그리고 續藏經은 의천의 주도에 의하여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그 작업을 지원하여 이루어진 것이다.³⁰⁾ 따라서 ‘속장경은 화엄종에서 주도하여 조성하였다’³¹⁾고 볼 수 있다

한편, 13세기 고려불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사업이었으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완성된 고려재조대장경의 판각은, ‘당시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던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에서 그 조판을 주관하기는 하였으나, 경전 판각의 이론적인 측면은 守其를 비롯한 화엄종 승려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³²⁾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3세기 전반의 화엄종은, 비록 그 세력은 미미하였으나 재조대장경의 판각사업과 관련하여 그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2.2.2 天台宗

11세기말에 대각국사 의천이 고려에 천태종을 창립하면서 조계종의 세력 중 6-7할을 포섭하여 천태종에 흡수시킨 바 있다. 그리하여 12세기초부터 고려 불교계는 이른바 4대업 즉 4대종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충헌의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교종의 세력들이 분쇄’³³⁾된 후 교종의 세력은 쇠퇴하고, 禪宗 세

들이 무신정권에 반항하면서 최충헌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격돌에서 교종의 승도들은 최충헌에 의해서 도리어 분쇄당한다(『高麗史』列傳 42. 崔忠獻條, 참조.).

29) 開豐文化寺碑, 『韓國金石文全書』(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p.445-446.

30) 이 흥왕사는 당시 의천이 소속하였던 화엄종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31)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서울: 일조각, 1997), p.167.

32) 허홍식, 상계서, p.168.

33) 註 28)의 주문 참조 요.

력이 불교계의 주류 이루었다. 그 후 천태종에서는 了世(1163-1245)가 출현하여 결사를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교세를 확장시켜 나간다.

圓妙국사 요세³⁴⁾는 한 때 보조지눌과 함께 수년간 修禪의 실재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지눌이 송광산 정혜사로 옮겨갈 때, 요세는 남원 歸正寺의 주지 玄恪의 청으로 귀정사에 머물며 妙宗³⁵⁾을 강의하며 수선하기도 하였다. 1208년 봄에 영암 월출산 藥師寺(藥師蘭若)에서 천태의 妙解에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천태교관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 실천행으로는 修懺를 강조하였다.

요세가 일으킨 백련사³⁶⁾ 결사는, 강진 萬德寺 옛터에 절을 지어 이를 ‘白蓮社’³⁷⁾라 이름하고, 1216년(高宗 3)에 강진의 토호 崔彪·崔弘·李仁闡 등의 지원에 의하여 백련사를 결성하였다.³⁸⁾ 39)

그 후 요세는 백련사에서 1232년인 “임진년 4월 초파일날에 보현도량을 설치하고 범화삼매를 닦아 정도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는데, 오로지 『天台三昧儀』에 의지하였고, 또 오랫동안 『法華懺』을 닦으며, 매일 禪觀⁴⁰⁾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準提神呪』⁴¹⁾를 천 번 읊하고, 아미타불을 만 번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일과로 삼았

34) 원묘요세 : 자는 安貧이며 속성은 徐씨. 1163년 10월에 당시 戶長이었던 ‘必中’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新繁縣 출신으로, 지금의 경상도 陝川郡(의령) 출신, 1174년(12세)에 天樂寺의 均定에게 출가하여 天台教觀을 배웠다. 1185년(23세)에 승과에 급제하고, 뒤에 보조지눌에게 定慧禪寺에서 수선하며 지눌과 法友가 됨. 46세 되던 해 봄에 월출산 藥師寺에서 靜觀하던 중 깨달음을 얻음. 만덕사에서 입적.

35) 묘종은 ‘妙宗鈔 6卷’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天台智顓의 저술인 『觀無量壽經疏』에 대하여, 지의 이후 그를 계승한 北宋의 四明知禮(960-1028)가 鈔를 붙인 것이다. 이 초는 지의의 天台止觀을 바탕으로 한 淨土觀을 계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36) 白蓮社는 원래 중국 東晉의 고승 慧遠이 東林寺에서 念佛往生을 결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7) 현재의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의 백련사(白蓮寺)임.

38)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p.71.

39) 이와 같이 백련사가 개창될 때에는 강진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지방수령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帶方(남원)의 태수였던 卜章漢이 남원 관내에 ‘제2의 백련사’를 개창하도록 주선한다든가, 崔璘의 경우 그가 나주목사로 부임하면서 나주의 雲谷寺에 요세를 하안거하도록 청한 사례가 있다(채상식, 상계서, p.81.)

40) 天台의 ‘止觀修禪法’을 일컫는 것. ‘止觀’이라 함은, 止는 모든 번뇌의 그침이요, 觀은 자기의 天眞心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산란한 온갖 妄念을 그치고 고요하고 맑은 슬기로써 萬法을 비추어 보는 것을 지관라 함.

다”⁴²⁾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요세는 중국 천태종의 개창자인 天台智顛을 정통으로 삼음으로써 천태사상을 계승하고, 지의를 계승한 북송의 四明知禮⁴³⁾의 엄불정도적인 경향을 계승한 정토신앙을 실행의 기반으로 하였으며, 「법화경」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요세는 1236년에 제자인 天頤로 하여금 ‘白蓮結社文’을 찬술·공포케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백련결사를 표방하였다. 천태종은 바로 이러한 백련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세력을 점유하게 된다.

요컨대, 요세는 ‘수선’에서 수선 이전의 ‘천태교관’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천태교관을 완수하기 위한 실천방향으로 懺悔法과 미타정도로 인식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법화경」에 바탕한 천태지의의 ‘천태지관’·‘法華三昧懺儀’와 사명지례의 ‘觀無量壽經妙宗鈔’에서 찾았던 것이다.⁴⁴⁾ 바로 이와 같이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방향으로 강조한 요세의 불교사상은, 13세기 전기의 혼란상에 처하여 있던 불교계에 자각을 촉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인 대다수의 농민·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정토신앙이 민중 속에 깊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⁵⁾ 이와 같이 ‘참회’와 ‘정토왕생’을 강조한 요세의 신앙관은 지눌에 비해 보다 大衆的이었다⁴⁶⁾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백련사는 오히려 지눌의 정혜사 못지않게 많은 호응을 받음으로써 그 교세를 떨쳤다. 요세는 입적 후에 ‘圓妙國師’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 후 요세의 범통을 이은 이들도 국사나 국통에 올랐던 것이다.⁴⁷⁾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천태종이 무신정권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가?

41) 당말·송초에 법화·천태 계통에서 다라니(陀羅尼)를 염송(念誦)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요세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채상식, 전계서, p.77).

42)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序”, 「東文選」, 卷117.

43) 註 35)의 註文 참조 요.

44) 高翊晉, “圓妙國師 了世의 白蓮結社”, 「韓國天台思想研究」,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3), p.213-219.

45) 蔡尙植, “高麗後期 佛教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民族社, 1986), p.249.

46) 兪瑩淑, “고려 무신정권시대 불교계의 동향”,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p.225.

47) 고려말에 이 백련사에서 8國師가 배출되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교사학계 측에서는 ‘백련사도 보현도량이 개설된 뒤부터, 수선사에 대한 것보다는 미약하지만, 최씨 무신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련을 맺었다. 그리고 이것은 백련사의 대몽항쟁과 어느 정도 연관된 배려라고도 보여 진다’⁴⁸⁾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요세에 의하여 1216년에 백련사가 결성되고 보현도량이 설치되는 1232년까지 즉 ‘1220년대의 백련사는 지방토호와 지방관에 의하여 존속되었지만, 12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몽항쟁을 표방하자, 최이를 중심으로 한 무신정부는 자연스레 백련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백련사와 최씨정권과의 관계는 1230년대 이후에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⁹⁾ 실제로 1230년대 이후 백련사와 최씨정권과의 밀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가 있다.⁵⁰⁾ 그리하여 13세기 전반 최이를 비롯한 무신정권은 몽고의 침략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피폐할 데로 피폐되어 있던 지방사회의 대다수 민초들의 신앙이 정토신앙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백련사의 결사운동이 피지배층 즉 대다수의 농민·천민층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對蒙抗爭을 위한 이념적 토대의 마련 및 무신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이는 백련사와

48) 유영숙, 상계논문, p.226.

49) 최상식, “高麗後期 佛教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p.255-256.

50) 첫째, 강종(1211-1213)의 서녀이며 최충헌의 부인이 된 靜和宅主는 백련사에 무량수불을 조성·봉안케 하고 법화경을 金泥寫經(金字蓮經)을 하게 하였다(了圓, 『法華靈驗傳』, 卷下, “天帝邀經而入藏” 참조).

둘째, 최씨정권 하에서 무인으로 활약하다가 뒤에 몽고와의 강화시에 활약한 인물인 李世材의 경우, 1236년에 백련사에 입사하고 『법화경』 1000여부를 조판하여 널리 유포하기도 하였다(天頤, “答靈巖守金郎中情書”, 『湖山錄』, 卷下). 1237년에는 고종이 요세에게 ‘禪師’의 직함과 세찬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75세였던 요세에게 ‘선사’라는 직함을 내린 조치는 분명 백련사측의 보현도량의 설치와 대몽항쟁과의 관련된 대응조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최씨정권과 연결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최상식, 『高麗後期佛教史研究』, 81)는 견해도 있다.

셋째, 최이는 1240년 8월에 백련사에서 『법화경 戒環解』를 조판케 하고, 최이 본인이 직접 발문을 쓴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최이가 백련사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직접 나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세 사후에 백련사의 2세 법주로 오른 天因이 강화정부에 올린 소에서 최이를 축원하고 있는 점(天因, “初入院令壽齋疏文”, 『東文選』, 卷111.)은 보현도량과 최씨정권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 상호협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백련사를 중심으로 한 천태종은 1230년대와 1240년대에 무신정권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⁵¹⁾

2.2.2.3 曹溪宗

11세기말에 대각국사 의천이 고려에 천태종을 창립하면서 기존 조계종의 세력 중 6-7할을 포섭하여 천태종에 흡수시킨 바 있다. 그리하여 이 때 조계종은 상대적으로 한때 그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당시, 여기에 흡수되지 않았던 조계종의 승려는 圓應國師 學一(1052-1144)⁵²⁾이 있었다. 그밖에 李資玄(1061-1115)⁵³⁾과 大鑑國師 坦然(1070-1159)⁵⁴⁾ 등이 주목된다. 이들 선종계는 중국 남종선의 혜능 이래 臨濟義玄의 禪風을 계승하고 있었다. 특히 이자현은 「능엄경」을 중시하면서 위기에 처한 당시 선종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⁵⁵⁾

위와 같은 조계종의 상황에서 보조국사 知訥(1158-1210)에 의하여 1190년에 수선사가 결사된 일은 起死回生으로 볼 수 있다.⁵⁶⁾ 지눌은 1182년에 개경 普濟寺에서 10여명의 同學들과 談禪법회와 함께 名利를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定慧結社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눌은 1190년에 팔공산 居祖寺에서 結社文을 지어 定慧社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修禪社의 始發이었다. 그 후 지눌은 1200년

51) 이는 다음 장에서 논급되는 13세기 前期 佛書간행의 주제별 파악에서 증명될 것이다.

52) 逢渠·학일 : 속성은 이씨, 자는 봉거이며, 정읍 출신이다. 1085년에 승과에 급제한 후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祖師의 도가 쇠락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함, 의천이 圓覺會를 열고 학일을 부강사로 삼았으나 이 또한 거절하고 강석에만 참가하였다. 인종 때 왕사가 됨, 그가 은퇴하여 雲門寺에 머무르자 학인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물려들었다고 함. 입적 후 국사로 추증됨. 시호가 바로 圓應이다.

53) 이자현 : 예종 때의 거사로 선종을 진작시킨. 그는 특히 「雪峰語錄」과 「능엄경」을 중요시 하였으며, 慧照 坦然 등과 교류하며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54) 목암·탄연 : 속성은 孫씨, 1085년에 明經科에 합격하여, 번저(藩邸)에 있던 숙종의 초청으로 세자(예종)를 補導하다가, 1088년에 궁중을 몰래 나와 안적사로 출가함. 1105년에 승과에 급제함. 1146년에 완사가 됨. 왕희지 필체의 명필가로 金生 다음 가는 명필로 알려졌다.

55) 「능엄경」은 「小華嚴經」이라 불리면서 널리 독송되었고, 한국불교의 신행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56)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 중기 이후 개경 중심의 귀족불교에 대한 반발과 반성을 토대로 신앙실천을 위한 결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에 松廣山 吉祥寺⁵⁷⁾로 옮겨와서 돈오점수를 바탕으로 한 정혜쌍수를 주장하면서 11년 동안 이 절에 머물면서 曹溪禪의 선양에 힘썼던 것이다. 희종(1204-1211) 임금은 지눌의 이러한 결사에 감동하고, 그 元年(1205)에 왕명으로 '송광산 길상사'를 '曹溪山 修禪社'⁵⁸⁾로 개명하게 하였다. 여기에 많은 승려들이 호응함으로써 고려 후기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눌과 혜심 이후 이 송광사에서 16국사가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선풍을 크게 떨쳤다.

한편, 최충헌의 무신정권은 문벌귀족과 연결되어 있었던 교종과 대립되는 관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선종인 조계종 및 천태종과 밀착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사례로 「東國李相國集」 25권의 「昌福寺談禪勝」에 의하면, 최충헌은 1211년에 옛 창복사를 복원하고 선방을 여는 등 대규모의 참선법회를 지원⁵⁹⁾하는 등 선종과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같이 무신정권은 자기 세력의 기반으로써 당시 교종과 대립관계에 있던 선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선종 또한 그 자체가 지니는 성격상으로도 무신정권과 접근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⁶⁰⁾ 그리하여 13세기 전반 고려불교계는 조계종과 천태종이 그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2.2.3 최이 정권과 당시 불교계와의 관계

최이(?-1249)는 집권 초기에 민심을 얻는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그 중 최이와 수선사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였다. 즉, 1219년 9월에 최씨 무신정권의 제2대 집권자로 등장한 최이는 1210년에 지눌에 이어 제2세 수선사의 社主에 오른 眞覺國師 慧謙(1178-1234)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최이는 수

57) 현재의 曹溪山 松廣寺를 일컫는다.

58) 이 사찰은 定慧結社의 취지를 받들면 당연히 '定慧社'라 칭하여야 마땅하다. 이런데 이 절의 이웃에 '定慧寺'가 이미 있어서 그 명칭이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朝旨를 받들어 '定慧社'를 고쳐 '修禪社'라 하였던 것이다.

59) 「東國李相國集」 25권 「昌福寺談禪勝」 참조.

60) 李基白·閔賢九 編,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 高麗篇」 (서울: 일지사, 2003), p.211.

선사에 입사하여 혜심을 공경하였고, 그의 두 아들 萬宗과 萬全을 조계산에 보내어 혜심의 제자로 삼게 하였다.⁶¹⁾ 혜심과 최이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혜심이 입적(1234)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에도 최씨 무신정권의 수선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⁶²⁾ 이렇듯 수선사는 무신정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교단 확립의 터전을 닦았던 것이다.⁶³⁾ 더구나 ‘眞覺國師碑銘并序’⁶⁴⁾에 의하면, 혜심은 최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그를 도성으로 맞아들이려는 최이의 간청도 끝내 거절하고, 오로지 수선사를 지키면서 새로운 선종의 진작에 힘을 기울여 조계종의 기반을 확립시켰던 것이다.⁶⁵⁾ 이처럼 이 당시의 고려불교는 선종 중 조계종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3세기 전기에 최씨 무신정권은 특히 수선사의 법석을 잇는 法主들과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계종의 종찰인 수선사 즉 조계종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최이가 수선사를 크게 부각시킨 이유는, 수선사가 당시 사회에서 기존의 여타 종파에 비하여 크게 호응을 받아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무신정권의 세력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혜심의 수선사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⁶⁶⁾ 그리하여 최이 정권과 가장 밀착되었던 불교의 세력은 수선사 계통이었다⁶⁷⁾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이와 천태종파의 관계는, 1237년에 고종이 백련사의 요세에게 ‘선사’의 직함과 세찬을 내리기도 한 배경에는, 바로 무신정권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240년 8월에 백련사에서 ‘법화경 戒環解’를 조판케 하고 최이

61) 혜심도 이러한 최이의 귀의에 대하여, 그를 위해 祝壽齋를 주재하는가 하면, 그가 이끄는 무신정권의 시정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62) 예컨대, 진각혜심의 입적 후 2년 뒤에 최이는 강화에 수선사의 分社와 같은 禪源社를 창건하였다. 이 선원사에 眞明國師 混元(1191-1271)이 그 主盟로 있다가, 혼원의 스승인 夢如가 입적하자, 혼원은 수선사로 내려가 수선사의 제4세 사주가 되었다.

63) 李基白·閔賢九 編, 上揭書, p.221-222.

64) 李奎報 撰, “曹溪山二世 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并序”, 『東國李相國集』 卷35.

65) 閔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高麗中·後期佛敎史論』 (서울: 민족사, 1986), p.301.

66) 최상식, “고려시대 結社運動의 시대적 인식”,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p.234-235 참고.

67) 최상식, “高麗後期 佛敎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p.253.

가 발문을 쓴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요세 사후에 백련사의 제2세 범주로 오른 天因이 강화정부에 올린 소에서, ‘최이를 축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백련사가 12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몽항쟁을 표방한 것과 유관하며, 최이를 중심으로 한 무신정부는 자연스레 백련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백련사와 최씨정권과의 관계는 1230년대 이후에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⁶⁸⁾

3. 13세기 前期 불서간행의 현황

고려조의 13세기에는 불서의 간행이 비교적 적었을 뿐 아니라 거란과 몽고의 연이은 침략으로 인하여 이전에 간행되었던 수많은 서적들이 燒失되고 없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정권은 대몽항쟁의 와중에서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한반도의 남부지방 및 남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여러 土豪 및 백련사와 수선사를 비롯한 각 사원의 도움을 아니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최이 무신정권은 강화로 천도하여 육지와 고립된 상황에서 대몽항쟁을 치루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철저하게 불리한 조건이었고, ‘백련사나 수선사 등 僧俗을 초월한 결사운동은 남녀·빈부·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⁶⁹⁾ 게다가 최이정권은 육지의 대다수 국민들인 피지배계층의 농민과 賤民들을 대몽항쟁에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초들과 결합된 결사운동의 단체들과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⁷⁰⁾ 따라서 당

68) 최상식, “高麗後期 佛敎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p.255-256.

69) 허홍식, “13세기 高麗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p.86.

70) 실제로, 몽고의 침입이 있자 지배계층인 왕족과 조정의 관료들과 官人들은 강화도라는 안전한 섬에서 향락적 생활을 계속하였던 점에 비해, 일반백성들은 육지에서 항몽전선의 주력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것이다(民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高麗中·後期佛敎史論』, p.293.).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1232년(高宗 19) 1월 충주성(城)의 전투에서 上層民(양반)들은 모두 도망치지만, 노비와 雜類의 민초들이 끝까지 분전하여 몽고군을 격퇴시키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高麗史節要』 16, 高宗 19年 正月條.) 또한 1231년 9월의 평북 龜州 부근의 馬山 및 廣州의 초적

시의 무신정권은 위와 같은 농민들과 노비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백련사와 수선사의 결사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두 종파의 실천적 결사운동은 민중의 집단적 결속을 통하여 대몽항쟁을 지속해야 할 강화의 집권자들에게도 매우 긴요한 형태였기 때문이다.’⁷¹⁾ 그리하여 최이는 1230년대부터 대몽항쟁을 강력하게 표방하던 백련사와의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최이가 집권 당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수선사의 더욱 밀착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들 양대 도량에서 요구되는 불전의 간행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⁷²⁾

위와 같이 무신정권이 불교를 국가수호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은 결과, ‘장기간의 몽고의 침입을 받아 항전하는 동안 민족의 공통적 귀일점을 찾아 연대의식을 강조하게 되었고, 문화적 自尊意識을 표출시킴으로써 야만족에 대한 우월감이 강조되는 기운이 두드러졌던 것이다.’⁷³⁾ 그리하여 고려는 元(蒙古)이라는 제국의 거대한 무력에 맞서 대몽항쟁을 40년 동안이나 지속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드문 사례이다. 따라서 최이를 비롯한 무신정권은 대몽항쟁 기간 동안 민족의 공통적 귀일점인 불교를 구심점으로 삼아, 재조대장경을

(草賊)들이 대몽항쟁에 투입되어 전공을 올린 사례가 있다(『高麗史節要』 16, 高宗 18년 9月條). 그리고 고려 정부가 몽고에 굴복하여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결정하는 무렵인 1270년 6월 이후, 이른바 ‘三別抄의 항쟁’에서도 몽고에 항복을 원치 않았던 전국 각지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가담하여 별초로서 크게 활약한 사례, 1271년 1월에 경상도 밀양과 청도의 농민들이 진도의 삼별초 군대에 호응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개경의 관노들이 다루가치와 고려 관리를 죽이고 진도로 가려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사건 등(하일식, 『한국사』 (서울: 일빛, 1998), p.100-101). 실제로 대몽항쟁은 하층의 농민과 노비 즉 일반백성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民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p.293 참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대몽항쟁에서 실제로 몽고군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계층은 바로 피지배계층의 민초들인 농민과 노비들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71) 허홍식, “고려의 불교종파와 그 변천”,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p.186-187.

72) 한편, 불교사학계의 13세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崔怡를 비롯한 武臣政權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당시 불교계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였다는 연구도 없지 않다. 실제로 『高麗史』의 記述에서도 王權을 蹂躪하였다는 관점에서 최씨 무신정권을 貶下하는 기록도 보인다.

73) 民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p.295.

조조하고 여타의 불서간행을 지원·기획함으로써 대몽항쟁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백련사와 수선사가 제시하는 민중불교를 신봉하는 피지배계층인 일반백성들에게 대몽항쟁과 대장경의 조조는 곧바로 민족적·문화적 자존의식의 고취라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려의 대몽항쟁에서 끝까지 집요하게 항전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위와 같은 관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3세기 전기 즉 1201년부터 1251년까지 간행된 불서들의 상황에 대하여, 故 윤병태 교수의 「韓國書誌年表」⁷⁴⁾ 등 각종 書誌에서 추출하고 이들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3세기 前期 불서간행의 현황

| 書名 | 刊行年度 | 刊行地 및 備考 |
|------------------|----------------|---------------------------|
| 1) 六祖大師法寶壇經 | 熙宗3年(1207)12月 | 曹溪山 修禪寺 道人湛默 重刻 |
| 2) 華嚴論節要 | 熙宗3年(1207)12月 | 曹溪山 修禪寺 |
| 3) 永嘉眞覺大師證道歌 | 熙宗3年(1209) | 普濟寺 了悟沙門 宋板翻刻 印施 |
| 4) 正法眼藏 | 康宗2年(1213)2月 | 曹溪山 修禪寺 道人正宣 重刻 |
| 5) 宗鏡撮要 | 康宗2年(1213)2月 | 曹溪山 修禪寺 重彫 |
| 6)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 康宗2年(1213) | 大興王寺 雕造 |
| 7) 金剛般若波羅密經 | 高宗1年(1214)10月 | 公山 群生寺 住持 探古 施財 |
| 8) 看話決疑論 | 高宗2年(1215)5月 | 曹溪山 修禪寺. 李克材 施財 |
| 9) 梵書總持集 | 高宗6年(1219)7月 | 金山寺 仁赫 刻 |
| 10) 梵字大藏 1部 | 高宗6年(1219)7月 | 金山寺 印施 |
| 11) 宗門圓相集 | 高宗6年(1219) | 妙峰庵 夢如 刊 |
| 12) 天台四教儀 | 高宗10년(1223) | 高麗沙門 諦觀 著. 海印寺 重刻 |
| 13) 科分金剛經 | 高宗17年(1230) | 海印寺 所藏 |
| 14) 楞嚴經 戒環疏 | 高宗22年(1235)7月 | 海印寺 東板殿. (崔怡 喜捨 彫板) ★ |
| 15)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 | 高宗23年(1236)6月 | 海印寺 彫造 |
| 16) 妙法蓮華經 | 高宗23年(1236)12月 | 海印寺 東板殿 |
| 17) 妙法蓮華經 | 高宗23年(1236)推定 | 白蓮社, 李世材 彫板 流布 |
| 18) 三大部節要 | 高宗24年(1237) | 萬德山 白蓮寺 圓妙國師碑銘 |
| 19) (大字)金剛般若波羅密經 | 高宗24年(1237)12月 | 晉陽侯崔怡發願 (海印寺 西板殿) ★ |
| 20)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高宗26年(1239)9月 | 晉陽公崔怡 募工 重彫 鑄字本 謹誌 ★ |
| 21) 妙法蓮華經 戒環解 | 高宗27年(1240)8月 | 晉陽公崔怡雕板命令, 崔怡謹誌, 普賢道場印板 ★ |
| 22) 高麗再雕大藏經 | 1236-1251 | 大藏經雕板 功畢 |

(※ : ★표는 崔怡가 관련 불전의 刊行을 發願하거나 그의 喜捨 또는 跋文을 손수 작성한 것 등과 관련한 사항임)

74)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國會圖書館, 1972), p.5-6.

4. 修禪社 및 曹溪宗 관련 佛典의 분석

<표 1>에 보이는 종합서지에서 수선사 및 조계종과 관련성이 있는 불전들은, 1) · 2) · 3) · 4) · 5) · 7) · 8) · 11) · 13) · 14) · 15) · 18) · 20)에 해당하는 총 13종의 불서라 볼 수 있다. 이제 이들 불전들을 詳述하면 아래와 같다.

1)의 「六祖大師法寶壇經」은 「법보단경」 또는 「육조단경」이라 약칭되는 것으로 681년 慧能의 自敍傳적인 일대기를 담은 저술이다. 이 책에서는 頓悟·見性의 사상을 설하며, 특히 「금강경」에 기초하여 般若三昧를 설하고 一切法이 無相無念임을 밝히는, 이른바 南宗禪의 독립을 선언한 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보단경’이라 이름하고 있다. 수선사를 개창한 지눌이 일찍이 이 「법보단경」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은 수선사의 으뜸가는 修行의 지침서로 삼았다. 그 간행지는 수선사이며, 1207년에 간행한 것으로 보아, 지눌이 1200년에 수선사로 옮겨와서 결사를 본격화 한 후 많은 수행승들이 운집됨에 따라, 그 수행의 으뜸가는 지침서인 「법보단경」의 조조를 서둘렀던 결과, 수선사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책이라 볼 수 있다. 2)의 「華嚴論節要」 또한 수선사에서 간행한 선종 관련서로서, 唐 李通玄(636-673)이 쓴 「新華嚴經論」을 知訥이 정리하여 1207년에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요체는 禪과 華嚴의 통로를 여는 지눌의 力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눌의 문중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수선사에서 두 번째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3)의 「永嘉大師證道歌」는 1209년에 13세기 당시 조계종의 중요사찰 중의 하나였던 普濟寺⁷⁵⁾에서 宋板을 翻刻하여 간행한 것으로, 남종선 수행의 핵심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남명송증도가」의 母本으로서, 깨달음의 상태를 직접 설파한 것이기 때문에, 30년 뒤인 1239년에 「남명송증도가」가 간행되는 단초(端初)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의 「正法眼藏」 또한 수선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이 책은 중국 臨濟宗의 선사였

75) 1129년에 목암·탄연이 이 절의 주지(主旨)였고, 13세기 조계종(曹溪宗)의 중요 사찰 중의 하나였음.

던 大慧宗杲(1089-1163)가 엮은 公案集이다. 지눌은 정혜결사를 조직한 후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수행할 때에 대혜·종고의 「大慧語錄」을 보고 크게 깨우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혜종고의 이 공안집은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에서 실제로 참선수행하면서 깨우침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로 삼은 책이라 볼 수 있다.

5)의 「宗鏡撮要」 역시 수선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이 책은 北宋의 延壽(904-976)가 지은 「宗鏡錄」 100卷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종경록」의 요지는 ‘心外無佛 觸目皆法 /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온갖 것이 모두 법이다’라는 禪門의 핵심을 설파한 것이다.

7)의 「金剛般若波羅密經」은 팔공산(公山) 群生寺의 住持인 探古의 시주(施財)에 의하여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선사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금강경」은 중국의 선종 특히 육조·혜능 이래 조계종의 所依經典이기 때문에, 조계종을 비롯한 선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전이다. 「한국서지년표」에 의하면, 1095년 大興王寺에서 「금강경」이 한번 간행(雕造)된 이래, 12세기에는 「금강경」이 전국에서 간행된 기록이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2세기 당시 조계종의 쇠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지눌이 1190년에야 팔공산 거조암에서 <定慧結社文>을 작성하였고, 1200년에 송광산 길상사로 옮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조계종 및 수선사가 활발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수선사의 결사에 대중이 운집하면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수요도 자연 증가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이 간행된 군생사는 지눌이 <정혜결사문>을 작성하였던 거조암과 함께 팔공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 및 수선사에 이르기까지 남부지방의 사찰 중 조계종에 소속된 사원과 승려들의 짧은 기간에 매우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팔공산 군생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刊本에는 金剛經啓請·淨口業眞言·發願文 등이 수록되어 있고, 末尾에는 般若眞言·金剛經眞言 등이 附記되어 있어, 당시의 밀교신앙과 정토신앙 등을 알 수 있다.’⁷⁶⁾ 이러한 사항은 13세기초 즉 1214년 당시 조계종에서는 귀족불교를 지양하고 민중불교로 전환한

76)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p.51.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8)의 「看話決疑論」은 지눌이 敎學者의 知解(알음알이)의 병을 治斷하고, 看話의 참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지눌의 또 다른 저술인 「圓頓成佛論」과 함께, 지눌이 入寂(1210)한 후 수선사의 제2대 사주인 慧謙에 의하여 발견되어 1215년에 처음으로 수선사에서 간행된 것이다.⁷⁷⁾ 이와 같은 「간화결의론」은 바로 대혜의 간화선이 지눌에 의하여 수용되고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눌에 의하여 수선사가 개창되면서 이 「간화결의론」은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의 매우 중요한 지침서로 간주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1)의 「宗門圓相集」은, 고려 후기의 高僧인 至謙이 禪旨를 표시하는 圓相(圓相; ○)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1219년(高宗 6)에, 나중에 수선사의 제3세 사주가 되는 淸眞國師 夢如(?-1252)가 跋文을 쓰고 妙峰庵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발문에 의하면, 圓相은 중국 육조혜능의 제자인 慧忠이 처음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華藏寺에서 선수행을 하던 지겸이 여러 禪錄에서 圓相 170칙(則)을 採錄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⁷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몽여는, 수선사의 제2세였던 혜심이 입적한 1234년부터 1252년까지 수선사의 사주로 활약하였다. 이 「종문원상집」은 몽여가 혜심의 제자로 있을 때, 선을 수행하는 납자들에게 이런 원상들을 보이면서 根機에 따라 이치를 증득함이 빠르고 더딘 것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종문원상집」은 수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전이라 할 것이다.

13)의 「科分金剛經」은 1230년(高宗 17)에 간행된 것으로 현재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금강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경을 三分(序分·正宗分·流通分)으로 分科하여 간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계종의 소의경전을 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77)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604년 지리산 雙溪寺, 1608년 조계산 松廣寺, 1616년 송화 修顯庵, 1626년 天冠山 천관사 간행본이 있다.

78) 이 책은 예컨대, ○은 涅槃相이며 理佛性相이며, 그리고 圓(圓) 속에 牛字를 그려 넣은 圓相은 소가 雪山에서 나는 忍草를 먹는 모습이며 見性成佛相이라 한다. 또 圓 속에 人字를 그려 넣은 圓相은 근본을 알고 근원으로 돌아간 相이라 설명한다. 또한 圓 속에 衲字를 그려 넣은 圓相은 因果滿相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圓을 사용하여 만든 圖相들은 禪宗의 깊은 사상을 응축시킨 것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매우 난해하다.

시대(1230)의 해인사는 조계종의 중요사찰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14)의 「楞嚴經 戒環疏」는, 이를 논술하기 전에 먼저 「능엄경」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능엄경」은 李資玄(1061-1115)과 默庵坦然(1070-1159) 등 고려 중기 이래 이 「능엄경」을 중심으로 당시 미약해진 禪宗界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조계종의 중요 경전이였다.⁷⁹⁾ 특히 「능엄경 계환소」는 탄연과 인연이 깊었던 중국의 계환이 저술한 「능엄경」에 관한 論疏로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요시되었고, 조선 세조 때에는 우리말(諺解)로 번역이 되었고, 그 후각본이 현존하고 있을 정도이다.⁸⁰⁾ 이와 같이, 고려 중기 李資玄 이하 선종에서 「능엄경」을 중요시한 전통이 바로 이 당시에 ‘계환이 해설한 「楞嚴經疏」’를 주목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능엄경」은 고려 12세기에 조계종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경전이며, 그 후 13세기에 들어와 「능엄경 계환소」가 조계종에서 다시 중요시됨으로써 조계종의 기반확립에 도움을 준 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능엄경 계환소」는 1235년에 간행된 것으로, 이 책 마지막의 발문 다음에 ‘첫3자(字) 내려쓰기’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간행기록이 있다. 즉,

奉爲
 聖壽千長隣兵永息
 晉陽侯厄會消除福壽增延文虎叶和報登
 民樂法界生全同證圓通之願盡捨家儲影
 板楞嚴經戒環疏印施無窮者
 時乙未七月 日 謹誌
 財主鹿鳴鄉前長李 勝光
 同類道人等 克圓 了非⁸¹⁾

라 하여, 세로쓰기로 기입되어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의 천세(聖壽千長)와

79) 특히 탄연은, 宋에 유학한 적은 없지만, 해능의 범맥을 계승한 중국 임제종의 介諶禪師에게 범의 印可를 받았다. 또한 탄연은 중국 임제종의 선사인 戒環 등과 서신을 통하여 道友가 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斷俗寺大鑑國師國師碑”, 「朝鮮金石總攬」 上卷, 563.). 그리하여 탄연은 중국 임제종의 선승들로부터 그 높은 수준을 인정받음으로써 ‘臨濟義玄의 9世孫’이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80) 허홍식, “高麗中期 禪宗의 復興과 看話禪의 展開”, p.147-148. 참고.

81) 박상국 편저,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p.392.

몽고군이 물러가기(隣兵永息)를 바라며, 그 다음에 진양후(최이)에게 재앙이 사라지고(厄會消除) 그의 장수(福壽增延)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주자(財主)가 별도로 기입되어 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조계종의 중요경전인 「능엄경」을 간행하면서 국난극복의 염원과 함께 진양후 최이의 수복을 기원해줄 만큼, 조계종과 최이가 서로 밀착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特記할만한 사실은, 이 책을 간행한 해인사를 注目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인사에서는 이 당시인 1223년에 이미 백련사 결사의 핵심기체인 「천태사교의」를 간행하였고, 그 2년 뒤인 1235년에는 「능엄경계환소」를 간행하는가 하면, 또 그 2년 뒤인 1237년에 「大字금강경」을 간행하도록 최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注目해야 한다. 즉, 최이는 해인사에 대하여 격년에 한번씩 3회 연속으로 큰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해인사는 당시(1230년대) 경상도 지역에서 백련사와 수선사가 연합한 대몽항쟁의 주요거점사찰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15)의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은 1236년(高宗 23) 6월에 해인사에서 조조된 것이다. 이러한 「다라니경」은 원래 밀교의 경전이지만, 수선사의 제2대 사주였던 진각국사 ‘혜심은 넓은 의미에서 실천공덕신앙과 밀교적인 요소도 포용하는 탄력성을 가진 당대최고의 사상가’⁸²⁾였기 때문에, 조계종과의 관련에 의하여 간행되었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해인사에 이 경의 목판 중 단 1판만이 보존되어 있다. 이 책은 四方의 諸佛·諸菩薩·諸神의 이름을 열거한 것으로, 「불설다라니경」과 「사천왕주경」 등에서 이름만 발췌한 약경(略經)의 일종으로, 외적퇴치의 기원을 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1236년 당시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다라니경의 마지막 장에 “聖壽無窮 隣兵永息 時和歲於 國泰民安之願...丙申六月... 海印寺 彫造”⁸³⁾라는 문구의 간행기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천왕다라니경」은 해인사에서 몽고군의 퇴치를 기원하기 위하여 간행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230년대 해인사는 당시 민중불교를 지향하였던 백련사와 수선사가 연합한 대몽항쟁의 주요거점사찰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

82) 채상식, “고려시대 結社運動의 시대적 인식”, p.235.

83)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록판집」, p.409.

레이다. 18)의 「(大字)金剛般若波羅密經」은 현재 해인사 西板殿에 보존되어 있으며 매 판에 16행11자의 大字로 간각된 것이며, 현존하는 것은 16판(32張)이 있다. 이것은 1237년(高宗 24)에 최이가 발원하여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 책의 말미(末尾)에 “金剛般若經彫板流通 所冀 隣兵不起 國祥中興”이라는 문구(文句)를 기입하여, 이 「금강경」을 유통시킴으로써 몽고군이 다시 침략하지 않고 나라가 중흥되기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최이를 비롯한 무신정권은 이와 같은 「금강경」을 비롯한 대장경의 조조를 추진한 근본적 의도는 곧 국가의 중흥과 대몽항쟁을 위하여 수선사와 그 신도들인 일반국민들에 대한 격려의 방편으로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선사의 제2대 사주였던 진각국사 ‘혜심은 이러한 「금강경」을 수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神異와 靈驗을 강조한 바 있었고, 또한 혜심이 이끄는 수선사는 당시 독서층과 지방사회의 향리층이나 일반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⁸⁴⁾하고 있었다.’⁸⁵⁾ 더구나 이 「금강경」을 간행한 1237년 당시는 혜심이 입적(1234)한 후 3주기가 되는 해였다.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최이에 의하여 위 「금강경」의 간행이 발원됨으로써, 최이는 당시 불교계의 최고지도자였던 수선사의 제3세 사주인 夢如를 비롯하여 수선사를 따르는 일반민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써, 이러한 상황의 진전은 최씨 무신정권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20)의 「南明頌證道歌」에서 특별하게 논술할 것은, 최이의 발원에 의하며 당시 대몽항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면서도 ‘聖壽無窮 隣兵永息 時和歲於 國泰民安’ 등의 대몽항쟁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간행기념에 관한 문구를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남명송증도가」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간행기 형식의 발문에는 ‘남명송증도가」는 禪門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며, 전래가 끊긴 이 책을 목판으로 거듭 새겨냄(重彫)으로써 오래토록 전래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그 간행의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84)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이 최이(崔怡) 정권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져, 최이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수선사는 전체 불교교단을 통괄하는 위치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85) 채상식, “고려시대 結社運動의 시대적 인식”, p.235-236.

사향은, 당시 최이가 존경하고 또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수선사의 제2세 사주였던 혜심이 입적(1234)한 후, 수선사의 제3세 사주가 된 몽여(?-1252) 특별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최이의 특별한 謹誌가 이 「남명송증도가」의 발문으로 기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00년대 초반부터 당시 수선사의 결사이념 및 참선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육조단경」(1207)·「화엄론절요」(1207)·「영가대사증도가」(1209)·「간화결의론」(1215)·「능엄경계환소」(1235)·「금강경」(1237) 등 6종이 이미 차례로 간행되어 있었다. 따라서 1239년 당시에 조계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던 자료는 바로 「남명송증도가」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선문에서 오묘한 깨달음(覺)의 상태를 여실하게 노래한 영가현각의 「증도가」는 그냥 막연하게 그 내용을 해석하기만 하여서는 결코 바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도가」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책인 「남명송증도가」가 간행된다면,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의 승려들이 참선의 실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이가 위의 「남명송증도가」를 시급하게 손수 간행·발원함으로써, 최이는 수선사의 제3세 사주인 몽여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이는 당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을 막론하고 큰 지지를 받고 있던 수선사를 비롯하여, 혜심 이후 몽여가 이끄는 수선사를 따르는 일반백성들로부터 결정적으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무신정권이 주도하는 대몽항쟁에 대한 민족정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남명송증도가」의 간행은 최씨 무신정권의 정치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5. 白蓮社 및 天台宗 관련 불전의 분석

제3장에서 제시한 <표 1>의 종합서지에서 백련사 및 천태종과 관련이 있는 불전들은 12)·16)·17)·18)·21)에 해당하는 5종의 불서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들 불전에 대하여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12)의 「天台四教儀」는 광종조에 고려의 승려였던 諦觀이 송나라로 유학(960)가서 10년 동안 天台學을 수학하면서 중국에서 저술한 것으로, 천태종의 敎相判釋인 「五時八敎」에 관하여 논술 것으로, 그 후 중국에서 「천태사교의집주(集註)」⁸⁶⁾와 「천태사교집해(集解)」⁸⁷⁾가 저술될 정도로 천태학의 핵심도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천태사교의」가 1223년에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은 특히 주목할 일이다. 왜냐하면, 요세가 백련사를 결사한 때는 1216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1220년대의 해인사에서 주로 조계종과 관련된 불전들인 「과분금강경」 및 「능엄경 계환해」 등이 간행된 것으로 보아, 불교의 분류법이라 할 수 있는 교상관석에 대하여, 그 대표적인 교상관석인 천태학의 교상관석을 공부하기 위하여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해인사에서 이 당시에 「천태사교의」가 간행된 것은 교상관석 연구의 일환이거나 또는 천태종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간행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6)의 「妙法蓮華經」은 「법화경」이라 약칭되며 중국 천태종의 개창자인 天台智顓의 교상관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전으로 간주됨으로써, 천태종의 핵심 소의경전이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이 「법화경」은 해인사 東板殿에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서, 1236년(高宗 23)에 판각된 것이다. 이 책 권제7의 말미에 우바새(優婆塞) 鄭舊의 기록(誌)에 의하면 “.. 隣兵巨解 朝野鏡清 次願晉陽候 長爲國家柱石 永作佛法藩藩...”이라 하여, 몽고군이 물러가고, 조야가 거울처럼 맑고, 진양후 최이가 오래 동안 국가의 기둥이 되어 줄 것과 불법이 세상을 두루 보호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시 천태종 및 백련사와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7)의 「법화경」의 경우, 최씨정권 하에서 무인으로 활약하다가 뒤에 몽고와의 강화 때에 활약한 인물인 李世材는 1236년에 백련사에 入社하고, ‘그가 「법화경」 1,000여부를 조판하여 널리 유포하였다’⁸⁸⁾는 기록이 있다. 이 경우, 최이의 측근이라

86) 원나라 滕潤 저. 「천태사교의」를 주해한 것으로, 해석이 정밀하고 정중하여 천태학 초학자의 필수자료.

87) 송나라의 從義 저. 「천태사교의」를 해석한 것.

88) 天頤, “答靈巖守金郎中愔書”, 「湖山錄」 卷下.

할 수 있는 무신정권의 일원이 백련사에서 천태종의 소의경전을 조판케 하고 직접 1,000여부를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8)의 「三大部節要」가 1237년에 간행된 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삼대부절요」에서 말하는 ‘삼대부’란 천태종의 개창자인 천태지의가 저술한 「묘법법화경현의」10권·「묘법연화경무구」10권·「마하지관」10권을 일컫는 것으로, 이에 대한 節要가 백련사의 사주였던 요세에 의하여 이 당시에 간행되었다는 것은, 1216년에 백련사가 결사된 후 불과 20여년 만에 중국천태종 출법의 이론적 기반이 담겨있는 3대핵심서를 고려천태종에서도 완전히 수렴·정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1230년대의 백련사의 결사는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의 한 증거라 할 수 있다.

21)의 「法華經 戒環解」는, 최이가 발원하여 1240년 8월에 백련사 보현도량(道場)에서 이 책을 조판케 하고, 이를 印板할 때 최이 자신이 직접 발문을 쓴 점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12세기 전기 중국 임제종의 선사였던 계환이 「법화경」의 요지를 명쾌하게 해설한 것으로써, 백련사를 비롯한 천태종의 승려들에게 그들의 소의경전에 대한 해설서의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에 최이가 이 책을 간행케 하면서 직접 발문까지 작성하였다는 것은, 최이 무신정권이 백련사에 대한 지극한 배려와 관심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1240년 당시 무신정권의 首長인 최이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련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高麗再雕大藏經 雕造의 의미

主旨在는 바와 같이, <표 1>의 22)에 제시된,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는 13세기를 비롯한 한국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화사업이다. 이러한 재조대장경을 조조하게 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일차자료는 李奎報의 <大藏刻版君臣祈告文>⁸⁹⁾이다. 왜냐하면, 이 기고문은 대장경의 판각을 착수하면서 임금과 신하들(君臣)이 고유(告諭)한 글로써, 바로 그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채록한 시기라 할

수 있는 1237년(丁酉)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는, 1231년(辛卯; 高宗 18) 8월에 몽고의 제1차 침입을 받은 이후인 그해 12월에 작성된 것으로써, 몽고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君臣祈告文>⁹⁰⁾을 들 수 있다.

위 두 기고문의 내용에 의하면, 제불보살과 天帝釋을 비롯한 三十三天 및 一切護法靈官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⁹¹⁾ 몽고가 침입하여 초조대장경을 비롯한 국가의 寶貝들을 불사르며 우리의 강토를 짓밟는 짓은 불교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야만적인 소행임을 지적하고, 지난 현종2년(1011) 당시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초조)대장경의 판각을 맹서(誓刻)한 후에 거란이 스스로 물러간 사례를 고하고, 이제 다시 (재조)대장경의 판각을 발원하여 저 추악한 무리들이 멀리 달아나기를 제불보살 등에게 기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려재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오로지 불법을 신봉하는 맑고 바른 마음에서 정성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임을 말하여 준다.⁹²⁾ 즉, 이는 불교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족적인 분노를 폭발시키고, 여기에 군신을 비롯한 위정자와 민중들의 호응을 꾀함으로써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이 무렵에 위기에 처한 국가가 외세에 대한 대항하는 수단으로써, 단일국교를 받들던 민중들을 동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강화로 천도한 뒤에, 소실된 대장경을 복구하는 구체적인

89)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 卷25, (서울: 東國文化社, 1958), p.272-273.

90) 李奎報, “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 卷25, (서울: 東國文化社, 1958), p.272.

91) 大藏經에는 蒙古를 격퇴하기 위한 信仰으로 登場하고 있는 對象은 諸佛菩薩과 天帝釋 등의 一切護法靈官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적인 여러 부처의 菩薩과 또 釋尊신앙 및 권속중을 신앙 대상으로 하여 國難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불교의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도 대장경 간행과 雕造가 갖는 의미는 큰 것이지만, 帝釋信仰의 입장에서 대장경 雕造는 國難극복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고려의 帝釋信仰은 밀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신봉되면서 그 신앙 전개에 있어서는 正法修行과 國難타개라는 이중성을 띄고 발전하였지만, 고려시대에는 帝釋의 生天보다는 釋尊을 降臨시키려는 의도가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帝釋의 降臨으로 구체화시키려는 의지가 바로 大藏經의 刊行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92)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第48卷(總目錄·解題·索引)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p.10.

사업의 하나로 대장경을 다시 조성함으로써, 전체국민들의 신앙심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대몽항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심을 집결시켰으므로, 국가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저항을 가능하게 만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⁹³⁾ 그리하여 재조대장경의 조조를 수행하게 되는 데에는, '현종 때 (초조)대장경의 판각을 통하여 거란이 격퇴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신앙적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⁹⁴⁾

위와 같이 재조대장경의 판각사업은, 몽고의 침략에 대한 격퇴를 위하여 불교를 중심점으로 하여 지배계층인 군신들과 피지배계층인 일반백성들과의 결속 및 일체적 동질감을 갖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려 정부는 강화로 천도한 직후부터 왕실의 안녕이 중시되는 불교의례인 팔관회·연등회⁹⁵⁾ 등의 법회와 도량을 끊임없이 개최한다. 이러한 왕실·국가 중심의 법회 및 도량의 개최는 정치적인 권위를 강화시키고, 불교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정해 갈 수 있는 최고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다.⁹⁶⁾ 요컨대, 고려재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오로지 불법을 신봉하는

93)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7), p.164-165. 참고.

94) 한편, '대장경의 조조 사업은 대몽항쟁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원세력이 참여하고 최씨 무신정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화도로의 천도를 실현시킨 최씨는 지배계층의 결속뿐만 아니라 최씨 무신정권이 주도하는 국난극복과 정권안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전 고려의 민중들을 대몽항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최씨는 開京 당시에 국가적 불교이념을 제공해 준 특정 사원들을 강화도에 건립하여 국난극복의 정신적인 구심점의 場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사원 건립이라는 제한적인 기능으로서의 국가적인 비상시기에 국가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단결을 유도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장경 雕造 사업이 등장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95) 연등회를 개최하는 사원이면서 太祖의 진전사원이었고, 국가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奉恩寺를 천도 후 처음으로 건립하였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 봉은사는 高宗 21년(1234) 2월에 車僞家를 개조하여 건립하였는데, 이같이 봉은사를 우선적으로 건립한 것은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원의 재건을 추진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에도 賢聖寺·法王寺·王輪寺·妙通寺·乾聖寺·福靈寺·昌福寺 등의 사원이 강화도에 건립되었는데, 이러한 사원의 건립도 봉은사를 세운 의의와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96) 「고려사」에 의거하면, 당시 강화도에서 베풀어진 불교의례는 팔관회·연등회 이외에도 消災道場·仁王道場·佛頂道場·薩戒道場·華嚴神衆道場 등이 끊임없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인 고종이 이러한 법회와 도량에 직접 참가하거나 주관함으로써,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소멸시키고자 진력하였던 것이다.

맑고 바른 마음에서 정성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으며, 몽고의 침략에 대한 격퇴의 기원 및 대몽항쟁의 수행을 위한 이념적 토대의 구축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사업은 국가수호라는 강력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마무리 작업은 최씨 무신정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이는 1234년에 수선사의 강화 分司라 할 수 있는 禪源社를 창건하였으며, 이 선원사에 ‘大藏都監’을 설치하여 재조대장경의 판각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추정되며, 이 사찰을 최씨 집안의 진전사원으로 삼았다. 게다가 대장도감의 지방분소인 남해분사는 남해안에 위치하여 몽고의 피해가 적었고, 최씨의 세습적인 식읍이 있는 진주와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식읍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최이의 두 아들이 이곳 부근의 사원에 주지로 와서, 최이의 권세를 앞세워 官穀을 이용하여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장경을 조판하는 실질적인 주도자와 경제적인 후원, 즉 ‘최이의 식읍인 晋州를 일원으로 넓혀져 그곳에 설치된 분사도감을 통하여 막대한 재력과 노동력을 용이하게 투입함으로써 대장경의 각판이 순조롭게 완수될 수 있었다. 즉 재조대장경은 최이의 주도 아래에 착수·진행되고, 그 아들인 최항(1209-1257)에 의하여 완성되었다⁹⁷⁾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원은 당시의 최씨 집권자와 조계종 및 이와 관련된 사원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혜심에서부터 천영에 이르는 수선사의 주지들과 최씨 집권자들이 대장경의 조판에 한 축이 되어 직접 관여하고, 이들과 관련있는 선원사·수선사·단속사·쌍봉사 등이 강화와 남부지방에 위치하는 사원들이 또 하나의 주축이 되어 대장경의 판각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⁹⁸⁾ 결국 재조대장경의 조조는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아, 대몽항쟁 와중의 어려운 국가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97) 이기백·민현구, 『韓國文化史 - 高麗篇』 (서울: 일지사, 2003), p.234.

98) 허홍식, 『韓國中世佛敎史研究』, p.169-170. 참고.

7. 결 론

이상의 본론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아래와 같다.

13세기 전기에 간행된 불전은 현재 20여종 전승되고 있으며, 고려재조대장경의 각판 또한 현재까지 고스란히 전래되고 있다. 그 중 조계종 및 수선사와 관련이 있는 불서는 총 13종이며, 백련사 및 천태종과 관련이 있는 불서는 5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3세기 전기는 몽고의 침략으로 인하여 당시 사회상이 극도로 혼란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최이의 무신정권이 지속되었으나, 당시 불교계에서는 고려시대 불교계의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수선사 및 백련사의 결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결실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결사운동은 당시 사회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대다수 농민과 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포용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당시의 활발한 불서의 간행은 결국, 수선사와 백련사의 이론적 기반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띠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몽고의 침략(1231)이 있자 강화로 천도(1232)하여 국가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면서,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격려·선동하여 대몽항쟁을 전개하여야 하는 최이의 무신정부는 대몽항쟁을 위한 이념적 기반구축을 당시 불교계를 통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몽고와의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최이는 수선사와 백련사의 결사들과 연대·제휴하여 불교를 지배계층 및 피지배 계층의 모든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공동체 성원들에게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업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이는 대몽항쟁의 이념구축을 위한 기반을 수선사와 백련사의 결사에서 찾아내고, 수선사와 백련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출해냄으로써 보다 강력한 대몽항쟁을 지속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국난극복 및 대몽항쟁의 지속’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최이 무신정권은 「남명송증도가」와 「법화경 계환해」의 간행 및 고려재조대장경의 판각을 발원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최이 무신정권은

첫째, 13세기 전기 당시 조계종 및 수선사 결사에 대한 이론적 기반서로서 간행된 12종의 간행 불서에 대한 총결판(板)이라 할 수 있는 「남명송증도가」의 간행을 직접 발원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깨달음(道)’의 문제를 가장 명쾌하게 해설한 책이며, 특히 鑄字本을 1239년에 목판으로 거듭 새겨(重彫) 간행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최이는 「남명송증도가」 간행의 발문까지 또한 직접 작성함으로써, 수선사로부터의 보다 확고한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였을 것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다.

둘째, 1240년에 무신정권은 백련결사와의 보다 강력한 결속을 위하여, 백련사의 소속종파인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해설한 「법화경 계환해」의 조판을 직접 명령하고, 이를 백련사의 보현도량에서 印板하게 하면서 그 간행의 발문 또한 손수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이 「법화경 계환해」의 간행은 바로 백련결사의 핵심기저인 「천태사교의」(1223)와 「법화경」(1236)의 간행에 연이은 백련결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총결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3세기 전기 당시 무신정권은 ‘대몽항쟁의 지속’이라는 속제(俗諦)⁹⁹⁾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선사와 백련사 양대 결사의 이론적 기반 불서의 간행’이라는 진제(眞諦)¹⁰⁰⁾의 방법론으로 대처하였던 것은 실로 탁견(卓見)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난극복과 대몽항전의 수행’이라는 가장 세속적이고 다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의 정치·사회 문제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장 출세간적인 깨달음의 문제를 거론하는 불서의 간행이라는 방법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명송증도가」·「법화경 계환해」의 간행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이들 불서의 간행은 단순히 사원에서 불법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만 간행된 것이 아니라, 官主導의 성격 즉 당시 최고실력자가 발원하여 간행된 일종의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13세기 전기에 무신정권은 몽고의 침략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조대장경을 조조함으로써, 국난극복과 대몽항전을 수행하기 위한 이념을 구

99) 世間的인 眞理를 일컬음.

100) 出世間的인 眞理를 일컬음.

축하여 당시 국민인 대다수의 농민들과 천민들에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⁰¹⁾ 요컨대, 13세기 전기 조계종 및 수선사와 관련한 불서는 총13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들 수선사 관련불서의 간행에 대한 결산이라 할 수 있는 「남명송증도가」는 1239년에 최이의 발원에 의하여, 수선사와 무신정권과의 더욱 원활한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鑄字版을 목판으로 거듭 새겨(重彫)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3세기 전기에 천태종 및 백련사와 관련이 있는 불서는 총5종이 간행되었다. 그 중 「법화경 계환해」는 백련사에 대한 총결이면서 그 이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1240년에 최이의 발원에 의하여, 백련사와 무신정권의 관계개선이라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51년에 완성된 고려재조대장경 또한 최씨 무신정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완료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13세기 전기 불서들의 간행 및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는, 오로지 불법을 신봉하는 맑고 바른 마음에서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반백성들의 민족적 동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론, 즉 대몽항쟁을 위한 민족적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高麗史」.
 「高麗史節要」.
 「景德傳燈錄」.
 「南明泉和尚頌證道歌」. 影印本. 서울; 삼성출판사, 1990.

101) 佛敎史學界에서는, 위와 같은 최씨 무신정권의 국난극복 대처방법은 무신정부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불교를 정치에 이용하였다고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학계의 견해는, 史書 등 기록에 나타난 정치적 역학구조의 파악에만 관심을 둔 결과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심리적 정신세계 및 개인 내면의 실상에 대한 파악은 기록의 표면에서 그 판단이 不可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기록의 이면(裏面)에서 그 文化史的 의미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全.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檀紀4291.
- 開豊玄化寺碑. 「韓國金石文全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p.445-446.
- “斷俗寺大鑑國師國師碑”. 「朝鮮金石總攬」上卷. p.563.
- 了圓. 「法華靈驗傳」卷下. “天帝邀經而入藏”.
- 李奎報. “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卷25, 서울: 東國文化社, 1958. p.272.
-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卷25. 서울: 東國文化社, 1958. p.272- 273.
- 李奎報 撰. “曹溪山第二世 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并序”. 「東國李相國集」卷35.
- 鄭道傳. 「三峰集」卷1. “置書籍鋪詩并序”.
- ‘昌福寺談禪榜’. 「東國李相國集」25卷.
- 天因. “初入院令壽齋疏文”. 「東文選」卷111.
- 天頌. “答靈巖守金郎中情書”. 「湖山錄」卷下.
-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序”. 「東文選」卷117.
- 黃壽永 編著. “高麗僊鳳寺大覺國師碑陰記”. 「第五版 韓國金石遺文」. 서울: 一志社, 1994. p.476.
- 高翊晉. “圓妙國師 了世의 白蓮結社”. 「韓國天台思想研究」.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3. p.213-219.
- 김상기.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閔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민족사, 1986. p.291-306.
- 박상국 편.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불교학회. 「高麗後期佛教展開史의 研究」. 서울: 民族社, 1986.
- 불교학회 편.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민족사, 1986.
- 俞瑩淑. “고려 무신정권시대 불교계의 동향”.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p.225.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國會圖書館, 1972.
- 李基白·閔賢九 編.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 高麗篇」. 서울: 일지사, 2003.
-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第48卷(總目錄·解題·索引).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p.3-17.
- 千惠鳳., 「高麗鑄字版 重彫本 南明泉化像頌證道歌 解說書」. 서울: 삼성출판사, 1990.
- 최상식. “고려시대 結社運動의 시대적 인식”.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p.231-240.
- 蔡尙植. “高麗後期 佛教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民族社, 1986. p.239-264.
-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 하일식. 「한국사」. 서울: 일빛, 1998.
- 許興植. “13세기 高麗 佛教界의 새로운 傾向”.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民族社, 1986. p.69-98.
- 허흥식.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6.
- 허흥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K C I